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	
	배포일시	2018. 3. 30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진후, 주무관 이동우</li> <li>• ☎ (044) 201-3848, 3849</li> </ul>
보도일시		3. 30.(금) 15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국토부,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한 간담회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자동차관리관 주제로 3월 30일(금)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 중인 18개 업체·대학 등과 간담회를 갖고,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.
  -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우버·테슬라 등의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이 자리에서 자동차관리관은 임시운행허가 시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출현 등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있으나, 시험운행 전에는 항상 자율주행차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·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,
  - 관련 규정\*에 따라 시험운행 중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,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.

\* 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

- 이와 함께 각자 기술 수준에 따라 야간·악천후 등 시야가 제한되거나, 통행량과 돌발상황이 많은 혼잡한 도심 등 운행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시험운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- 또한,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성도 낮아지는 만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.
-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테스트베드 K-City를 지속 고도화하여 통제된 안전한 환경에서 저조도·악천후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,
- 실시간으로 교통·상황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제공하는 스마트도로 인프라도 확대 구축하는 등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- 한편,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.
- 그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센서 등의 변경사항, 시험운행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가 보고받고,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시험운행을 일시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-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“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 등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 밝혔습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